

화순군 “내년 유기농 분야 공모사업 미리 준비하세요”

6월부터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 4개 사업 공모

“농업인·단체·마을,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화순군이 오는 6월부터 '2022년 유기농 육성 분야 공모사업'이 추진된다며 친환경 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지금부터 공모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국비 지원 1개 사업과 도비 지원 3개 사업의 공모가 6월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 공모가 6월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18곳을 선정한다.

1곳당 총사업비는 10억 원(보조 80%·자부담 20%)으로 ▲친환경 비닐 재배 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 10호 이상인 생산자 단체 ▲친환경 과수·채소는 2ha 이상, 참여농가 5호 이상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가공·유

통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 후 군 심사와 현장심사(6월), 전라남도 발표 평가(7월), 농림부 발표 평가(8-9월)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7월부터는 전라남도 주관 3개 사업의 공모가 시작된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6곳을 선정한다. 1곳당 총사업비는 5억 원(보조 70%·자부담 30%)으로 친환경 재배 농가, 생산자 단체, 육묘업 등록 법인 등이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와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장비, 육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7월부터 시·군 신청과 전남도 현장심사와 발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8월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2곳을 선정하며, 총사업비는 1곳당 5억 원(보조 60%·자부담 40%)이다. 비 10ha 이상(비 이의 품목은 2ha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 단체가 친환경 비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저온저장고, 친환경 쌀도정시설 등 생산·가공·유통 시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군 신청은 8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전남도 현장 심사와 발표 평가(9월)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도 2곳을 선정, 1곳당 총사업비는 5억 원(보조 90%·자부담 10%)이다. 농가 20호 이상, 경지 면적 20ha 이상 마을 중 친환경 인증면적이 50% 이상, 유기농 인증이 20% 이상인 마을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동 생산·가공·유통·체류 교육 시설 등 마을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군 '유기농 생태마을 자문위원회'

를 구성해 자문·컨설팅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8월에 시·군 신청과 전남도 사업 신청, 전남도 현장 심사와 발표 평가(9월)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 마을에서는 사전에 준비해 공모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신품종 벼 개발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한다

지역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 연장

담양군에서 '지역 특화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담양군은 지역 환경에 적합한 벼의 품종 개발을 위해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군 단위로 벼 육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군은 벼 품종개발을 위해 인공교배, 계통육성시험 및 생산력검정시험 등을 거쳐 2018년에 담양1호, 2019년에 담양2호를 선발해 전국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수행했고, 2020년에도 담양3호를 선발했다.

벼 품종개발은 인공교배에서 품종 개발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2021년 3월 업무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육성된 우량품종이 지

역품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부터 새롭게 5년 간 업무협약을 연장하게 됐다.

또한 군은 '2020년도 하반기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립식량과학원 벼 육종재배과장을 지난 고재민 박사를 초빙, 지난해 9월부터 3년간 벼 품종 개발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선발된 우량계통은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뛰어난 벼 육종기술을 가진 국립식량과학원과 협약을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벼를 개발할 것”이라며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강한 농업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개강

기초·취업준비반 등 4개 과정...인권 등 내용도 함께 구성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건강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16일 개강했다.

개강식에 참석한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 17명은 한국어를 배운다는 기대감으로 들뜬 표정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실력과 필요에 따라 기초반, 취업준비반, 학습지도반

등 4개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수업은 실생활에 필요한 읽기, 듣기, 쓰기 등 기본으로 결혼이민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도 함께 구성된다.

또한 16일 개강한 소규모 대면수업과 함께 zoom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현재 온라인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개강식



을 3월 18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개강식에서는 수업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끝까지 교육을 잘 이수하자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2009년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통번역 지원,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건강다문화센터가 됐다. 다문화, 한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건강다문화센터는 생애주기별 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 첫걸음 시작

28세대 46명 입교식 12월 말까지 전문교육

구례군은 지난 9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대강당에서 2021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5기 교육생 입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약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순호 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안내, 특강, 입교생 대표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순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입교생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10개월간 진행되는 귀농·귀촌교육을 통해 모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귀농인을 위한 농업사관학교로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10개월간 정착교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정착을 돕고 있어 입교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각종 작물재배 이론 및 실습, 농기계 조작 및 운용 등의 농업실용교육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융화교육, 농지 및 주택 등 부동산 정보와 법률 등 농촌정착을 위한 실생활 교육을 진행한다.

입교생들은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정착교육에서 70% 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 후 귀농한 교육생은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사업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현재 5기 입교생은 35세대 중 원룸형 23세대, 주택형 5세대 총 28세대를 선발하였으며, 잔여 7세대는 3월 말까지 상시모집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061-780-2085)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한다

나주시는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 파악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자료로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업인별로 작성돼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해 농지 소유권 변동, 입차기간 만료, 중복 작성, 경작면적 미달자 등을 현행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올해 8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 농지원부 건에 대해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